

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과학 바로 알기

- TBN 대구교통방송 연계, '기후변화과학 바로 알기' 퀴즈 운영
- 코레일과 함께하는 '기후변화주간 특별 전시회' 개최
-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서 '특별이벤트' 및 '특별프로그램' 실시

-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함동주)는 2023년 제15회 기후변화주간¹⁾을 맞아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직접적인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기후변화과학 바로 알기 홍보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추진한다.
- 기후변화과학 홍보는 TBN 대구교통방송, 코레일,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다채로운 방법으로 운영된다. 특히 △「기후변화과학 바로 알기」언론 인터뷰 및 퀴즈이벤트, △「기후변화주간 특별 전시회」, △「국립대구기상과학관과 함께하는 특별이벤트」 등 온·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.
- 「기후변화과학 바로 알기」언론 인터뷰는 4월 26일 TBN 대구교통방송 인기 프로그램 '대구매거진' 수요일 코너 매거진초대석에 대구지방기상청 기후과학팀장이 출연하여 지구의 날 의미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이슈 등을 소개하며, 퀴즈 이벤트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TBN 대구교통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기후변화 퀴즈에 대한 정답을 문자로 받아 정답자에게는 대구지방기상청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.
- 「기후변화주간 특별 전시회」는 기상청에서 주관한 '2023년 기상 기후 사진 공모전' 수상작 30점과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주관의

1) 기후변화주간(4.21.~4.27.)은 지구의 날(4.22.)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공감대 및 기후행동 확산을 위하여 일주일간 운영됨.
2023년 기후변화주간 주제: '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'

‘2023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 시화 그리기 대회’ 수상작 22점이 동 대구역 내 제2맛이방 통로에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.

○ 「국립대구기상과학관과 함께하는 특별이벤트」는 로비에 마련된 기상 나무에 지구사랑 메시지를 작성해서 개인 SNS에 게재하는 ‘지구사랑 가득 기상 나무 만들기’,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실천 방법 도자기컵에 디자인해 보는 ‘지구 한 컵 만들기’,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집중해설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구 체험활동 등 관람객들과 기후변화에 대해 공유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.

○ 이 밖에도 대구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구의 날 당일 ‘소등행사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.

□ 함동주 대구지방기상청장은, “이번 기후변화주간 기념 여러 가지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지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,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상·기후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장진호 (053-282-0160)
		담당자	주무관	김윤기 (053-282-0168)